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너희도 서로
남의 방을
씻기 위하여 한다.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찬 양	I. 우리가 교회	마중물 찬양대
	II. 너는 내 것이라	청과 찬양대
말 씬	다시 좁은 문으로	이재훈 목사
거둠 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청과의 노래	서해나 정이든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: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재홍 목사
공동체 소식		김재홍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
인 도 자 : 교우 여러분,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.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청과교회와 동행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.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꿈을 다시 꾸십시오. 생명과 평화의 꿈을 가슴에 품고,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십시오. 그 문은 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잊지 마십시오.


다 함 께 : 아멘.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크고 넓은 길로 가려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가던 길을 멈추고,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.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겠습니다.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
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이재훈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1부 김형욱	공동기도	인도자	이재훈
	2부 김형욱	윤성중	남인자	이재훈

 청과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과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과교회)

